

축사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세계 언론인들이 토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 되길]

존경하는 세계 각국의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완수입니다. 2023년 세계기자대회에 축하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해 온 이 대회를 통해 100여개국 1천여 명의 기자들이 소중한 교류를 이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하늘길이 막혀 온라인으로 밖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세계의 기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연대의 포용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회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세계의 기자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대면하여 맞게 되신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께 특별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자리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함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사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의 리더십과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이미 디지털 전환의 국면을 넘어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발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언론계에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챗GPT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간의 제대로 된 '검증'이 아주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자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서,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추적 보도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기자대회는 전 세계 기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기자들로부터 지역발전과 평화정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이 제시되고,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수원, 부산, 인천 등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계획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여러 기자들께서 모처럼 한국의 문화와 정취를 속속들이 느껴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언론사, 어느 역할에서든 언론의 본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기자대회를 통한 기자 여러분들의 연대와 협력을 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